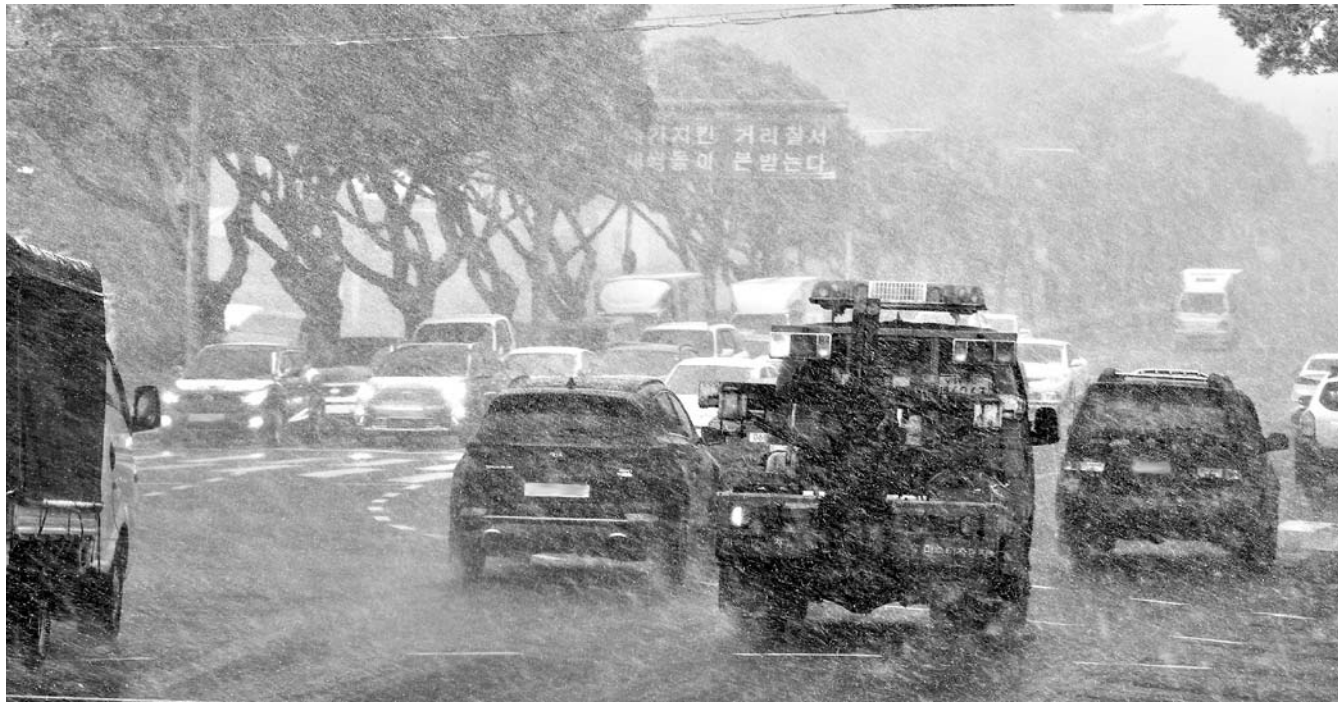


눈 내리고 바람 불고... 제주섬 "춥다 추워"

어제 도전역 대설특보 한라산에는 눈폭탄 내려 곳곳서 강풍피해 잇따라 제주공항 결항·지연 속출 기상청 "찬공기 계속 유입"



눈보라가 휘몰아친 17일 출근길 신제주지역 도로에서 차들이 전조등을 켜채 서행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돼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제주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뱃길이 모두 끊기고, 항공기 운항에는 차질이 빚어졌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7일 제주도 남부와 서부, 북부에 대설주의보를, 제주 산지에 대설경보를 각각 내리는 등 도내 전 지역에 대설특보를 발효했다. 대설경보로 입산이 통제된 한라산에는 눈폭탄이 쏟아졌다.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 55.5cm의 눈이 쌓인 것을 비롯해 윗세오름 20.8cm, 아리목 21.1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특히 기존에 쌓인 눈까지 더해진 진달래밭은 누적 적설량이 오후 4시 기준 70cm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서광 5.7cm, 유수암 5.3cm, 산천단 3.6cm, 강정 2.9cm, 서귀포 0.5cm 등의 적설량을 보였다.

기상청은 18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리고, 해안 지역에는 1~5cm의 눈이 더 오겠다고 예보했다.

많은 눈으로 일부 도로에선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이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1100도로에서는 대형과 소형 차량 모두 통행이 금지됐고 5·16도로에선 체인을 감은 대형 차량에 한해 운행이 허용됐다. 또 비자림로 5·16도로 교차로~산굼부리 구간에선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장구를 갖추어 운행할 수 있었고, 명림로 전 구간은 소형과 대형차량 모두 월동장비를 갖추어 진입이 가능했다. 또 얼어붙은 도로 사정에도 곳곳에서 차량이 서행 운행했다.

바람도 거세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윈드시어(돌풍)와 강풍 특보가 내려진 제주

국제공항에서는 다른 공항 날씨 문제까지 더해져 오후 4시 기준 22편이 결항하고 35편이 지연 운항했다. 바닷길은 완전히 마비돼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7개 항로에서 10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또 강풍으로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맴돌았다.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후 4시 16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의 한 주택에서는 강풍에 의해 지붕이 부서지고, 비수한 시카 제주시 노형동에서는 신호등이 쪼여 떨어질것 같다는 신고에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영하 30℃ 이하

의 찬 공기가 북서풍을 타고 서쪽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서해상에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했다"면서 "이 눈구름이 서풍과 북서풍을 타고 제주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깨다가 대기까지 불안정해 제주에서는 울겨울 첫 싸락 우박이 관측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18일까지 산지와 중산간 이상 도로는 결빙되는 곳이 많겠으며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월동장비를 갖추길 주문했다. 또 곳은 날씨로 항공기 연결편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공항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관광업계 지원"

정부, 긴급 지원방안 수립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긴급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숙박업계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방한관광객 감소, 물동량 흐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먼저 관광·외식업에 대한 단기적 경영안정 방안으로 담보능력 없는 중소기업의 자금에 대해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의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반융자(1.5~2.25%, 최대 30억원)도 업계수요를 감안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상환도 신청시 이날부터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숙박업계 경우 지방의회 의결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납부허용 등의

아울러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3조원 한도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외식업체에 대해선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관광지와 외식업체 방역 강화,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으로 방문 수요를 높이고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매 분위기 확산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마련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부처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며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면이 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경찰,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 단속

5월 26일까지 100일간

경찰청은 오는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층에 큰 피해를 주는 전화금융사기와 주취 폭력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사기·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생활 폭력 ▷사기수배자 등이다.

현재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

범죄수사대 30개팀(174명)을 전화금융사기 수사 전담팀으로 구성했다.

또 경찰은 사기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전국 94개 경찰서에 추적팀을 편성했다. 추적팀은 이 기간 각종 사기범을 적극적으로 검거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이 더욱 안심·안전·행복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환경단체 제2차 조류조사

성산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성산지역 주위 해안 및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 일대에서 '제주 성산지역 제2차 조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1차 조사를 주관한 주유기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과 함

께 환경단체 '새와 생명의 터' 대표인 나일무어스 박사도 참여한다.

이들은 "1차 전수조사 보고서 이후 국토부에서 20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조류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모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석기자

"정당의 최고위원직과 도지사 병행할 수 없다" 비상도민회의 원 지사 비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직을 수락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최고위원직과 지사직은 병행할 수 없다"며 "원지사의 품격있는 마지막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취임 당시 제주도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원 지사의 약속은 이미 깨진지 오래"라며 "정치의 기본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에 원 지사의 이같은

행보는 결코 가법계 볼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현직 지사로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기에,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 활동 범위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선거 시기에 정당의 활동이 곧 정당의 선거운동이지 선거와 별도로 구분된 정당 활동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 지사는 적어도 주 2회 이상은 여의도에 상주해야 할 판으로 도정 공백은 볼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제주도는 투쟁 지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주도를 위해 봉사할 진정한 도백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응급실 난동 60대 벌금형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8시 49분쯤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시겠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응급실 보안요원의 복부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상민기자

징역형 선고 교수 직위해제

제주대학교는 최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46)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퇴직해야 한다. 김 교수가 항소할 수도 있으나, 제주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제주대학교 관계자는 "현재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소집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해외.영농 투자자 모집

사업명 : 제주한라봉.레드향.감귤농장

- 영농지역 : 베트남.다낭 (광남성)
- 사업규모 : 300ha (약100만평)
- 영농투자인원 : 5~6인 선착순
- 투자금액
1인당 10만usd 1억2천만원
- 투자자
1인1ha (3천평). 현지. 국제. 변호사공증. 본인명의
- 사용기간 : 50년간
- 소 득
2년 경과후 3만usd 보장
농장매매 및 상속가능
재해보험가입가능 (주.정부행정지원)

문의 상담 : 제주시 봉개동 (황금농원)
H.p. 010-9292-693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 유라실생 3년생
- 유라실생 접수분양
- 천혜향 4년생
- 성전온주 4년생
- 황금향 4년생
- 병자묘 1년생, 수고 70전
-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제품 분양

유라실생(노지, 하우스) 정상착과시 전허부피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지관당 일만원 판매) 의심되는분은 전화주시면 노지 하우스재매 하는 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감류 레드향(무특)·천혜향(무특) 한라봉·황금향·미니향 아마나스·제라몬(레몬)

조생 유라실생·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글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